오늘의 게시판

아름다운 우리그릇 생활자기전 16일까지 일곡갤러리

행사

〈9일〉

▲남해안 중심시군 부단체장 협의회=오전 11시 여수시청.

▲스타마케팅 동영상 중간시사회=오후 2시 목포시청 상황실.

▲신활력사업 황토명품농업 시범사업 설명회=오후 2시 해남문화회관 다목적실.

▲제123회 광주시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오전 11시 의회본회의장.

〈10일〉

▲원도심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오후 3시 목포시청 상황실.

▲자동차배출가스 시·구합동 무료점검=오전 10시 진월동 매연초소.

전시

▲살레시안 50주년 기념 살레시안전=15일까지 자미갤러리.

▲주제가 있는 도서전=13일까지 일곡갤러리.

▲아름다운 우리그릇 생활자기전=16일까지 일곡갤러리.

▲중허 서예전=10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송윤 서예원전=11~1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아름다운 그림 걸기전=1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우제길전=6월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조선대학교 60주년 기념 '조대민중미술운동사'전=15일~26일까지 조선대미술관.

▲'땅 사람 그리고 꿈'展=17일까지 지산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전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는 이수영·방우성·이이남씨 등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

▲국제현대미술 확산전=6월2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 061-853-0003

▲광주시립미술관 '즐거운 미술여행'전=28일까지 시립미술관.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아트·동화나라·미술나라 등 어린이 체험형 행사.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물처럼 바람 처럼전=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한국화가 박은용, 오견규, 박희석씨 등의 작품 40점 전시.

▲'선(禪) 달마화'전= 12일부터 1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6전시실. 한국화가 성인호씨의 달마도 작품과 자기 등 50여점 전시.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현대작가 초대전'= 21일까지 남구 문예회관 전시실. 광주 지역 작가 26명의 작품 전시.

공연

▲소프라노 김진남 독창회=9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최재륜 작곡 발표회=10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역사속의 오늘

▲'빌헬름 텔'을 지은 독일의 극작가 실러 세상 떠남(1805)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 세상 떠남(1881)

▲미해군 지휘관 버드와 플로이넷, 처음으로 북극점 상공 비행 성공(1926)

▲노벨상 수상(1967)한 독일의 물리화학자 아이겐 태어남(1927)

▲독립운동가 남강 이승훈 세상 떠남(1930)

▲여자 정신대 경남반, 일본 후지현 강재공장에 동원됨(1944)

▲만해 한용운 스님 세상 떠남(1944)

▲동양방송(라디오 서울) 개국, 다섯번째 상업방송국(1964)

▲중국, 첫 수소폭탄 실험(1966)

▲이탈리아 모로 전 수상, 납치 55일만에 로마 시내 차속에서 피살체로 발견(1978)

▲미국과 소련, 제2단계 전략무기협정(SALT 2)에 합의(1979)

뉴스퀴즈

11. '1천만달러' 소녀로 불리는 이 여자선수가 최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남자대회인 한국프로골프(KPGA)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처음으로 컷 통과에 성공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여자 골퍼가 남자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03년 SBS최강전의 박세리(CJ)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선수는 7차례 성대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가 성공해 7전8기를 이뤄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위성미 ② 김미현 ③ 장정 ④ 안시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교사들이여 마음공부를하라

최 철

〈도곡중앙초등학교 교사〉

'나 얼마나 살아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나'

가수 김수희씨의 「애모」에 자조적인 가사를 붙여 불러 본다.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은 소박한 바람이자, 본질적인 고민을 토로해 보고자 나즈막히 읊즈려 본다.

교단에 서면서 '정말 좋은 교사가 되어 보리라'고 꿈 꿔 보지 않은 교사는 없을 것이다.

전인적인 교육을 꿈꾸지 않은 교사도 없을 것이다. 인성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에서 정말 한시도 소홀하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것이 모든 교사의 소망일 것이다.

20년 가까이 교단에 서면서 교육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임을 절감한다.

때로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변하는 정책도 힘겹고, 적어도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소신과 본질'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형벌처럼 다가오는 현실도 힘겹지만, 가장 허탈한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부인할 수 없는 때이다.

전인교육은 어느 한 시대의 교육사조가 아니라 항구적인 교육목표이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교단에 서는 교사라면 다같이 노력해야 할 목표이다.

문제는 전인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인격적으로 전인이 되어야 하는데, 전인적인 교사가 이론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고 싶은데, 아이들을 통해 오히려 나의 아픔이 투영되는 것을 본다.부인하고 싶은 부분이 나타나는 현실에 아연실색(啞然失色)해야 하는 것도 양심적인 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라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고민일 것이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마음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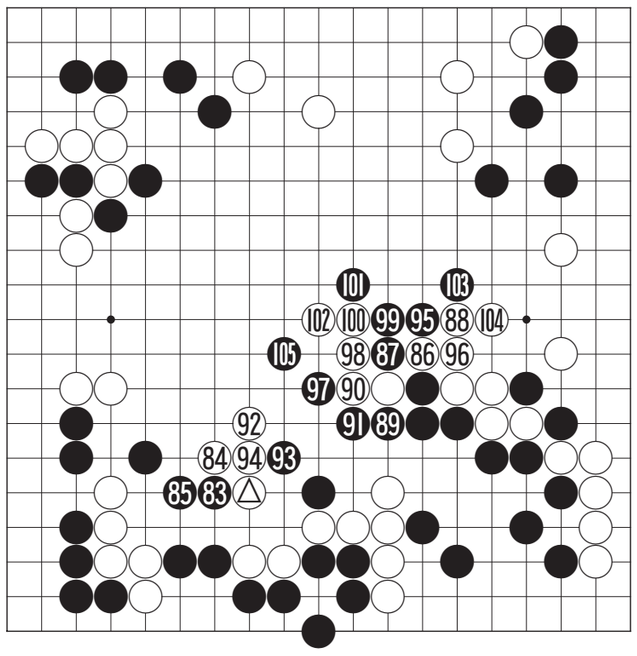
교육의 궁극적인 답은 승진도 아니요, 물질은 더 더욱 아닐 것이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것이 지상명령(至上命令)인 것을 생각해도, 초라하지 않을 교사로 서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마음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성숙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때를 닦아 마음과 가르침이 일치하는 교사이고 싶다.

지금까지 특별히 내세울 것 없이 교단에 서왔지만, 적어도 본질과 순수는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잖음에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생각들이 작은 보람을 가져오는 듯 하다.

아이들끼리 다툼이 없는 반, 의도적으로 시킨 봉사활동을 매 주말마다 쉬지 않는 자원 봉사로 실천하는 스스로 크는 아이들, 학력이 어려운 친구를 학교에서 돕는 것도 부족해서 집에까지 데려가서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돕는 아이, 습관이 좋아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또 다른 성숙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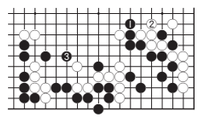
posco 광양제철소장배 바둑대회

'고육지책' 빈삼각

〈최강부 개인전〉 준결승 제 6보(83~105)

白 김복현(5단) 〈가야기우회〉

黑 기용성(5단) 〈하동화력발전소〉



〈참고도〉

백 △가 두고 싶은 요처였다. 김복현 5단은 중앙의 약점을 방치한 채 이 곳을 차지하고 보았다. 흑이 이곳을 두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상대가 강하게 버티자 기용성 5단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흑 83이 지키기에만 급급한 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늘어 백 2를 주문한 뒤 3으로 지켜야 했다.

이렇게 두었으면 별 변화없이 흑의 우세가 확실했다. 흑 83은 백 84를 당해 집으로도 상당한 손해였다.

상대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자 김 5단은 더욱 더 강수를 들고나와 86으로 틀어막았다. 이 곳은 백돌 곳곳에 약점이 산재해 있어 위태롭기 짝이 없다.

하지만 불리한 백은 이렇게 버티며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다. 102와 104가 고육지책의 빈삼각으로 현재 김 5단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허영호, 이세돌 제압

대구 영남일보의 허영호 5단이 지난 7일 바둑 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06 한국바둑리그전에서 서울 제일화재의 이세돌 9단에게 274수 끝에 흑 2집 반승을 거두는 파란을 연출했다.

제일화재는 주장 이세돌 9단이 일격을 당했으나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지석 3단이 이희성 6단에게 267수 끝에 흑 2집 반승을 거둠에 따라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날 대국에서 1-1 균형을 이룬 두 팀은 이날도 1승씩을 주고 받음에 따라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 GS Kixx'는 오는 11일 '경북 월드메르디앙'과 격돌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4월 12일 戊戌)

子 36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48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다. 60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2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하라. 84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 : 03, 43

丑 37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라. 49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6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73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 85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13, 23

寅 38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0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2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74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 05, 26

卯 39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51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리라. 63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5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 행운의 숫자 : 32, 44

辰 40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52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64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76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17, 28

巳 41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아야. 53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77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 40

午 42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54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66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리라. 78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34, 35

未 43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55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67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79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 24, 45

申 44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6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8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80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6, 27

酉 45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독이 된다. 57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69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1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2, 42

戌 46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8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0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9, 39

亥 47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9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71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83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41>

Are you a mind-reader?

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니?

A:Are you going to buy a video camera?
B:**Are you a mind-reader**? How did you know?
A:I borrowed a magazine from you yesterday, right? On the dog-eared page, there's an ad for a video camera.
B:I see. But I haven't decided yet which model to buy.

A:비디오 카메라를 살려고 하니?
B:**너는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니?** 어떻게 알았어?
A:내가 어제 너에게서 잡지 빌렸었잖아? 그 안에 카메라 광고가 있더라.
B:그렇더라. 근데 무슨 모델을 사야할지 모르겠다.

Are you a mind-reader? = Can you read minds?
dog-eared page : 강아지 귀 모양과 같이 귀퉁이를 살짝 접어놓은 페이지
Ad. = advertisement
which model to buy = 의문형용사+명사+to~ =명사구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41>

とんだ'おいてきぼり'を食(く)ったね

엄청난 따돌림을 당했군

A:いやあ 偉(えら)い目(め)にあったよ。
B:どうしたんだい?
A:高速(こうそく)バスで釜山(プサン)からソウルにかえってくる途中(とちゅう)ドライブインに寄(よ)ったんで、トイレに行(い)っていたらその間(あいだ)に バスが出(しゅっぱつ)しちゃったんだ。
B:それは、**とんだ'おいてきぼり'を食(く)ったね**。

A:야, 되게 혼났어.
B:무슨 일 있었어?
A:고속버스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에 갔더니 그 사이 버스가 출발해 버린 거야.
B:그거 엄청난 따돌림을 당했군.

偉(えら)い目(め)にあう : 예상도 못했을 정도로 큰일이 나다
寄(よ)る : 에 들리다
とんだ : 뜻하지 않은, 엄청난, 엉뚱한, 뜻밖의
間(あいだ) : 동안, 사이
しちゃった : 해 버리다 = てしまった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89>

请坐

앉으세요

A:欢迎! 欢迎! 请坐.
[illegible]
B:谢谢
[illegible]
A:你要喝什么茶?
[illegible]
B:随便.
[illegible]
A:환영합니다. 앉으세요
B:감사합니다.
A:어떤 차를 드릴까요?
B:아무거나 괜찮습니다.
坐 [illegible]
喝 [illegible]
什么 [illegible]
随便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259>

粉飾會計 (분식회계)

가루 분, 꾸밀 식, 모일 회, 헤아릴 계

분식(粉飾)이란 말이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하여 예쁘게 꾸미는 것이다. 따라서 분식회계(粉飾會計)란 실제보다 상태가 훨씬 좋게 보이도록 회계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분(粉)은 미(米)+분(分 : 나누다)로 빻은 쌀, 가루를 나타낸다. 식(飾)은 건(巾)+인(人)+식(食 : 音符)로, 사람이 천 조각을 이용하여 외관을 꾸미는 것이다. 회(會)는 증(曾)+△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타낸다. 계(計)는 언(言)+십(十)으로, 많은 물건과 숫자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외환(外換)위기 직후 한보철강 및 대우그룹 그리고 동아건설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가 세상에 드러나 온 국민이 놀랐던 적이 있다. 일종의 엉터리 회계장부인 분식회계는 대개 자산(資産)이나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負債)나 손실은 줄이기 위해 행해진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분식회계로 기업이 도산(倒産)하게 되면 다른 이유로 도산한 경우보다도 사회나 국가에 끼치는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분식회계와 같은 고질적인 관행(慣行)은 하루 빨리 근절(根絶)시켜야 할 것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105